

# 한국문헌목록정보(KORMARC)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 A Study of KORMARC Database : Problems and Recommendations

이 경 호(Kyung-Ho Lee)\*\*

### 〈목 차〉

#### I. 서론

- II. 현행 KORMARC 데이터입력의 문제점
  - 1. 입력레코드의 중복 및 일관성 결여
  - 2. 입력데이터의 오류문제
  - 3. 접근점이 되는 필드의 입력 및 검색원칙 미비
  - 4. 다권본자료의 입력원칙 미비
  - 5. 기술포맷과 이에 다른 입력의 문제점

#### III. KORMARC 데이터 입력을 위한 개선(안)

1. 정확한 기술규칙의 적용
2. 데이터 입력자의 철저한 교육
3. 자동화 환경에 맞는 용어의 사용
4. 카드목록을 전제로 한 기술방식 개선
5. 기술규칙의 현실화
6. 기술형식의 개선(안)

#### IV. 결론

### 초 록

이 논문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CD-ROM으로 제작하여 전국적으로 배포하고 있는 「한국문헌목록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 연구이다. 현재 「한국문헌목록정보」 데이터베이스에는 입력 레코드의 중복, 입력데이터의 오류, 검색상의 잡음이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으며, 데이터 입력 또한 KORMARC 기술규칙에 따르지 않고 있어 많은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금의 MARC시스템 자체가 과거 수작업 목록카드 시스템을 현재의 자동화 환경에 옮겨온 것으로서 온라인 환경에 적합하지 않은 요소 또한 상당히 포함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문헌목록정보」 CD-ROM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의 기술포맷과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기술규칙」을 검토하여 도서관 현장에서 보다 사용하기 쉽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and present the solution to the problems of KORMARC on Disc, which was produced by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and is being distributed nationwide. Currently, KORMARC on Disc has reached the serious level of duplicates of input record, error on input data and noise of retrieval. Furthermore, input data is not in accordance with KORMARC Rules for Descriptive Cataloging, thus generating many problems.

Of all thing, since current MARC system itself is based on manual system, it does not correspond effectively to the online environment. Accordingly, in order to elevate the quality of KORMARC database, current problems must be resolved, at the same time, Korea Machine Readable Cataloging must be modified into a format, more suitable to Machine Readable environment.

Consequently, the current study analyzes and identifies problems of data in KORMARC on Disc, at the same time, it examines currently used KORMARC Format and Korea Machine Readable Cataloging Rules for Descriptive Cataloging as to provide easier usage and guidelines for accurate data inputs.

\* 이 논문은 1999학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지원비에 의한 논문임

\*\* 대구대학교 문현정보학과 교수

## I. 서 론

도서관목록은 과거 수작업 중심의 카드목록에서 지금의 컴퓨터 환경 중심의 자동화목록으로 바뀌고 있다. 자동화목록은 초창기 컴퓨터에 의한 카드목록 생산이 가능해 짐에 따라 카드 목록을 생산하는 것으로 시작하였으나, 이것이 발전하여 MARC라는 기계가독목록 포맷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MARC가 만들어진 후에도 완전한 자동화목록을 위한 자동화 시대를 전제로 한 목록이 아니고 그야말로 컴퓨터가 입력된 목록데이터를 읽어서 목록카드를 생산하는 시스템으로 생각하여 기계가독목록(Machine Readable Cataloging), 즉 컴퓨터가 목록데이터를 읽어서 목록카드를 생산할 수 있는 형태의 목록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왔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MARC가 생성되던 시대와는 너무나도 다른 시대에 살고 있다. 자동화목록 또한 예외가 아니다. 그 이유를 들면, 지금의 자동화목록은 어느 도서관도 카드목록을 전제로 한 목록을 고려하고 있지 않으며, 카드목록에서 사용하던 용어조차도 그 의미가 점점 퇴색하고 있는 점은 이를 잘 입증하여 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Rahmatollah Fattahi가 지적한 바와 같이 “제1세대의 온라인 목록은 컴퓨터를 사용한 카드 목록이었으며, 온라인 목록의 요구에 적합한 규칙으로 개발하지는 못하였다”<sup>2)</sup>고 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온라인 목록은 아직까지도 카드목록에 기반을 둔 목록규칙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지금의 온라인 목록의 기술포맷 및 기술요소들이 카드목록과는 상이한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이를 요소를 온라인 목록에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이 자동화목록은 과거의 카드목록의 환경에서 너무나도 다른 환경에서 목록을 행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과거의 수작업 목록의 규칙을 그대로 답습한 채 목록을 행하고 있음은 하루 빨리 시정하여야 할 과제라고 본다. 따라서 정보관리 현장에서는 하루 빨리 자동화 목록의 환경에 맞는 규칙과 입력원칙을 마련하여 질적으로 우수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하며, 나아가 이용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지금의 목록데이터베이스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스템을 보완하여 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지금의 온라인 목록환경 하에서 이용자는 자기가 찾고자 하는 문헌의 저자가 다수인 경우 이들 저자들을 문헌의 표제지에 나타난 것과 같이 한꺼번에 보기자를 원하나 이것이 불가능하며, 또한 카드목록에서 사용한 것과 같은 너무나도 많은 이상한 부호를 사용하고 있어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 많다. 또 서명저자사항에서도 카드목록에서 사용하던 내용을 그대로 옮겨 사용하고 서명과 잡다한 저자사항들을 함께 기록하고 있어 이해가 어려우며, 각 입력필

2) Rahmatollah Fattahi,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in the Online Environment : A Literature Review,"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Vol.20, No.2(1995), p. 27.

드의 명칭도 표목이나 부출, 주기와 같은 카드목록에서 사용하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 교육의 현장에서 조차 어려움이 수반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CD-ROM으로 제작하여 전국적으로 배포하고 있는 <한국문헌목록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질적 문제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한국문헌목록정보> CD-ROM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지적함과 동시에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의 기술포맷과 기술규칙을 검토하여 도서관 현장에서 보다 사용하고 쉽고 정확하게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자 한다.

## II. 현행 KORMARC 데이터 입력의 문제점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제작하고 있는 한국문헌목록정보 -단행본판(1997)<sup>3)</sup> CD-ROM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의 문제점을 알아보기 위한 한 방법으로 서명검색에서 검색항목을 "한국문학전집"으로 검색하여 본 결과 나타난 일부분은 다음 <표-1><sup>4)</sup>과 같다. 이 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재 KORMARC상의 입력데이터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표 1〉 한국문학전집으로 검색한 결과 중 일부

번호	서명	저자명	발행사항
1	고개를 넘으면. 上下	剝花成 著	三省出版社 1972
2	고개를 넘으면. 上-下	朴花成 著	
3	九官鳥	許允碩 著	民衆書館 1983
4	九官鳥	許允碩 著	民衆書館 1983
5	그 여자의 연인. 上下	朴淵禧 著	三省出版社 1972
6	그女子의戀人. 上-下	朴淵禧 著	三省出版社 1972
7	錦衫의 피. 上-下	朴種和 著	三省出版社 1972
8	錦衫의 피. 上, 下	朴種和	三省出版社 1972
9	길	朱燿燮 著	三省出版社 1972
10	길	朱燿燮 著	三省出版社 1972
11	나무들 비탈에 서다	黃順元	三省出版社 1972
12	나무들 비탈에 서다	黃順元 著	三省出版社 1972
13	내가훔친여름	金承鉉	三省出版社 1972

3)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목록정보- 단행본-.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1997.

4) 여기에 나타난 리스트는 검색결과 나타난 리스트 가운데 레코드가 중복된 것을 앞부분부터 나타낸 것임.

#### 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 30권 제 3호)

번호	서명	저자명	발행사항
14	내가 훔친 여름; 六十耳式	金丞鉉 著	三省出版社 1972
15	동트는 하늘밑에서	李範宣	三省出版社 1972
16	동트는 하늘 밑에서	李範宣 著	三省出版社 1972
17	속돌이뜸의 땡이	李揆姬 著	三省出版社 1972
18	속술이 뜀의 땡이	李揆姬 著	三省出版社 1972
19	한국문학전집. 1-9.		三省堂 1988
20	한국문학전집. 10-18.		三省堂 1988
21	한국문학전집. 19-23.		三省堂 1988
22	한국문학전집. 24-27.		三省堂 1988
23	한국문학전집. 28-36.		三省堂 1988
24	回轉木馬	李建榮 著	三省出版社 1972
25	回轉木馬. 上, 下	李建榮 著	三省出版社 1972
26	히포크라테스胸像	辛相雄 著	三省出版社 1972
27	히포크라테스 胸像; 怨怒의 日記	辛相雄 著	三省出版社 1972

### 1. 입력레코드의 중복 및 일관성 결여

상기 <표-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서명검색으로 “한국문학전집”을 검색한 결과 전체 검색 건수 280건 가운데 76건의 레코드는 <표-1>의 1번과 2번, 3번과 4번 등과 같이 동일한 문헌이 이중으로 입력되어 있어 데이터베이스에는 152건의 문헌으로 입력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049태그를 사용하여 어느 분관, 어느 실에, 어떤 권, 호의 자료를 몇권 소장하고 있는지 정확한 복본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동일한 자료가 장소를 달리 하면 049를 반복하여 기술하고, 장소를 달리하지 않으면, 바코드 이하만을 반복 기술하면 된다.

049 \$a소장코드\$c분류번호\$d저자기호\$g바코드번호 \$h년도\$i권차정보  
\$\n복본정보\$o등록번호\$p가격(바코드 이하는 반복사용)<sup>5)</sup>

그러나 상기 <표-1>을 보면, 자료가 복본인 경우 하나의 레코드에 복본표시를 하여 입력하여야 하나 280건의 레코드 가운데 76건인 27%에 이르는 문헌이 이중으로 입력되어 있어 데이터베이스의 품질에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수치는 데이터베이스 전체에서 27%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상당부분 중복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데이터베이스가 실제보다 지나치게 방대해져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데이터의 입력이 이렇게 무원칙으로 입력된 주원인은 데이터베이스 제작 초창기 치밀한 계획과 이론 및 경험부족으로 빚어진 결과로

5) The Library Corporation, *ITS for Windows User Guide* (Inwood, West Virginia : TLC, 1998), p. A-1.

생각되나, 이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데이터베이스의 양적인 문제가 아닌 질적인 품질을 심각하게 고려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문제는 입력된 레코드의 전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정확한 복본처리와 정확한 데이터의 입력으로 국가적 수준의 손색없는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보다 치밀한 계획과 원칙 하에 질적으로 완벽한 국가적 수준의 목록 데이터베이스를 만들도록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본다.

## 2. 입력데이터의 오류문제

상기 <표-1>의 검색결과에서 나타난 오류를 살펴보면, 검색항목 1번의 저자명에서 朴花成을 剝花成 표기한 오류도 있고, 1번 레코드와 2번 레코드는 상기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하나의 레코드에서 복본 처리하여야 하나 별도의 레코드를 만든 자체가 잘못된 것이며, 두 레코드간의 권차표기에서도 일관성이 없다. 또한 17, 18번 레코드의 서명표기에서 17번은 “속돌이뜸의 땡이”로 표기하고, 18번에서는 “속솔이 뜰의 땡이”로 달리 표현하는가 하면, 653 비통제주제명에서도 “땡”이 아닌 “땡”으로 입력하고 있으며, 띄어쓰기도 각각 달리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부실한 데이터베이스를 국가적인 차원의 데이터베이스라고 어찌 말할 수 있고, 각 도서관으로 하여금 사용을 권장할 수 있겠는가? 단순히 하나의 검색결과에서 이렇게 오류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 실제 입력된 데이터는 어떠한지 짐작할 수 있다.

### <17번 자료의 입력내용>

1001 \$a이규희%  
 24510 \$a속돌이뜸의 땡이/\$d李揆姬 著%  
 260 \$a서울 : \$b三省出版社\$c1972%  
 300 \$a p.;\$c15cm%  
 44000 \$a韓國文學全集;\$v72%  
 653 \$a속돌이뜸\$a땡\$a한국문학전집&

### <18번 자료의 입력내용>

1001 \$a이규희%  
 24510 \$a속솔이 뜰의 땡이/\$d李揆姬 著%  
 260 \$a서울 : \$b三省出版社\$c1972%  
 300 \$a p.;\$c18cm%  
 44000 \$a韓國文學全集;\$v72%  
 653 \$a속솔\$a뜸\$a땡\$a한국문학전집&

### 3. 접근점이 되는 필드의 입력 및 검색원칙 미비

데이터베이스의 생명은 접근성과 신속성 및 정확성이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은 데이터가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원칙에 따라 입력된 경우에 가능하다. 특히 한글문헌의 서지 데이터를 입력하는 경우에 띄어쓰기는 접근점이 되는 필드의 경우 효율적인 검색을 위해서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KORMARC의 경우에는 이러한 기준을 찾아볼 수 없다. 우선 245 서명태그의 경우 경우에 따라서 붙여 입력하기도 하고, 띄어 입력하기도 한다.

이렇게 하면 문제는 검색이다. 올바른 검색이 이루어 질 수가 없다. 이용자 또한 복합명사가 붙여 사용되었는지 띄어쓰기를 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따라서 이에 대한 원칙이 제정되어야 한다.

다음은 검색상의 문제이다. 예를 들어 245 태그에서 서명이 "정보학개론"으로 되어 있는 경우 "정보학"으로 검색하여 검색이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검색프로그램이 잘못된 것이다. 검색옵션이 서명과 서명단어가 있지만, 서명단어는 서명 가운데 포함되어 있는 특정단어로 검색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서명으로 검색하는 경우에는 ...로 시작하는 문현을 검색하는 것과 같이 검색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보학"으로 검색하였다면, "정보학"이란 단어로 시작하는 모든 문현을 검색하여야 이상적이다. 서명이 "정보학개론"으로 붙여 쓰여졌다고 하여 검색할 수 없다면, 이것은 검색프로그램을 수정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 4. 다권본 자료의 입력원칙미비

KORMARC 데이터베이스에 있어서 입력의 일관성이 결여된 부분 가운데 특히 심한 부분은 다권본 자료나 전집자료와 같은 유형의 입력이다. 다권본인 경우에는 서명사항 다음에 권차표시를 할 것이 아니라, 태그 049(혹은 949)에 소장표시를 할 때 기술하여야 하는 사항이며, 권차에 따른 내용을 표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술사항(주기)에 표현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또한 전집의 경우 카드목록에서는 서명기본기입을 채택하고 있으나 KORMARC와 같은 자동화 목록에서는 개별서명이 명확한 경우에는 개별서명으로 낱권 처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실제 KORMARC 데이터베이스의 경우를 보면, 상기 <표-1>의 한국문학전집은 전체 36권으로 개별서명이 분명한 전집으로써 낱권처리 하는 것이 훨씬 이상적이다. 그러나 이렇게 하지 않고 종합기술방식으로 하였으나 이것도 5개의 레코드로 분할하여 목록하고 있다. 더욱이 이상한 것은 제21권의 정한숙의 "꿇어진 다리"는 종합기술방식으로 목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낱권처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아마 이것은 36권으로 된 한질 이외에 정한숙 / 유주현(제21권)의 작품을 별도로 한 권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나 이러한 경우에는 이

작품을 낱권 처리하여 복본정보를 049에 표시하여 목록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KORMARC 입력의 예> : 종합기술방식으로 입력한 예

24510 \$a한국문학전집.\$n19 - 23%

260 \$a서울 : \$b三省堂,\$c1988%

300 \$a5책 : \$b도판,\$c23cm%

505 \$b19, 여수... / 이봉구. 은넷골 이야기... / 오영수. - 20, 원색의 계절 / 손소희. 역사는 흐른다 ; 우리 사이 모든 것이 ; 어둠에 갇힌 불꽃들 / 한무숙. - 21, 강 건너 정인들 / 유주현. 끊어진 다리 / 정한숙. - 22, 자유인... / 김성한. 밤에 편 해바라기 / 이범선. - 23, 유리의 뒷 / 강신재. 파시 / 박경리%

653 \$a한국문학전집\$a여수\$a은넷골\$a이야기\$a원색\$a계절\$a역사\$a어둠\$a불꽃들  
\$a강\$a건너\$a정\$a끊어진\$a다리\$a자유인\$a밤\$a핀\$a해바라기\$a유리\$a뒷%

7001 \$a이봉구%

7001 \$a오영수%

7001 \$a손소희%

생략

<KORMARC 입력의 예> : 종합기술방식으로 입력한 것을 분할기술방식으로 이중으로 입력하였음

1001 \$a정한숙%

24510 \$a끊어진 다리/\$d鄭漢淑 著.\$a江건녀 情人들/\$d柳周鉉 著%

260 \$a서울 : \$b三省堂,\$c1983%

300 \$a617p. : \$b도판,초상화,\$c23cm%

44000 \$a韓國文學全集:\$v21%

653 \$a끊어진\$a다리\$a강건녀\$a정\$a한국문학전집%

7001 \$a유주현%

9500 \$a권당가격\$c(\\5500)%

965 \$a소설\$y현대\$z한국&

## 5. 기술포맷과 이에 따른 입력의 문제점

### 1) 기본표목(태그 100)

### (1) 기본표목의 용어에 대하여

KORMARC에서 태그 100은 기본표목이다. 이 기본표목이란 단어는 카드목록에서 사용하는 개념이다. 이것은 제한된 목록카드 상에 문헌의 서지기술사항을 체계적으로 기술하기 위해 만들어낸 용어로써, 목록카드 상에 제일 먼저 기술하는 요소를 말한다. 컴퓨터를 사용하지 않고 수작업으로 목록하는 경우에는 저자가 다수인 경우나, 또는 저자가 없는 경우 목록카드상의 기술순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으나 지금과 같이 카드목록을 생산하지 않는 컴퓨터 환경에서는 이러한 것이 기술상의 주요 변수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KORMARC와 같은 컴퓨터 목록환경에서는 이러한 개념을 사용할 필요도 없다. 무엇보다도 컴퓨터 환경하의 목록시스템에서 기본표목을 설명하고자 한다면, 목록카드를 그림으로 그려서 설명하여야 하는 모순이 있을 뿐 아니라 기본표목이란 개념을 사용하지 않아도 목록상의 불편이 전혀없기 때문에 이의 사용에 대해서는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

### (2) 태그 100의 정의

지금 USMARC에서 100은 ME : Personal Name으로 기본기입-인명으로 기입하고 있다. 그러나 KORMARC에서는 기본표목-인명으로 사용하여 있어 자동화목록에서는 기본표목보다는 기본기입이 더 바람직하다. 카드목록에서 기본표목-인명은 저자를 기입하며, 특히 저자가 여러 명인 경우 카드목록에서는 접근점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여러 명의 저자를 기입할 수 없어 이 가운데 한 명의 저자를 기본표목-인명으로 기입하고 나머지 저자는 부출지시하고 있다. 이러한 카드목록의 잔재를 KORMARC와 같은 컴퓨터목록에 그대로 옮겨온 것이다. 아마 이것은 MARC목록의 초창기에는 카드목록의 생산을 전제로 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향후 완전한 자동화 목록의 환경에서는 기본표목이란 용어가 필요 없게 된다. 이러한 추측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가능하다. 지금 KORMARC의 목록 예를 보면 아래와 같이 저자가 1인인 경우는 기본표목-개인명에 바로 기술하고, 2인 이상 3인 이하인 경우에는 태그 100에 첫 번째 저자를 기술하고, 나머지 저자를 700인 부출표목-개인명에 기술하고 있다.

(현행 목록의 예 : 저자가 1인인 경우)(△는 한 칸의 여백을 의미한다)

기본표목-개인명 100 □□\$a홍길동.

서명저자사항 245 □□\$a한국의 역사△/\$d홍길동 저.

(현행 목록의 예 : 저자가 3인인 경우)

기본표목-개인명 100 □□\$a홍길동.

서명저자사항 245 □□\$a한국의 역사△/\$d홍길동△;\$e이기동△;\$e김기동△공저.

부출표목-개인명 700 □□\$a이기동.

부출표목-개인명 700 □□\$a김기동.

이와 같이 기본표목에 1명의 저자만을 기술하는 방식은 어디까지나 카드목록의 잔재로 밖에 볼 수 없다. 만약 이용자가 첫 번째 저자가 아닌 2번째 이하의 저자로 찾는 경우에도 검색 후에 바로 저자사항에서 해당 저자를 볼 수 있어야 하겠으나, 지금의 시스템에서 볼 때 검색은 가능하나 저자사항에서 바로 모든 저자를 책의 표제에서 볼 수 있는 형식으로 볼 수 없다.

아마 이용자는 책의 커버에 나타난 형식 그대로 책의 저자를 보기를 원할 것이다. 위의 3인의 저자와 같은 문헌의 경우 이용자는 저자로 홍길동, 이기동, 김기동으로 바로 볼 것을 기대하고 있으나 시스템은 그렇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표목이란 개념이 필요 없는 만큼, 100을 기본표목-개인명으로 할 것이 아니라 저자사항으로 하여 검색의 액세스가 아닌 단순한 디스플레이의 역할로 모든 저자(역자, 편자 포함)를 전부 기입하고, 이들의 액세스는 700에서 기술하여 이용자가 어떠한 저자로 검색 하더라도 검색과 동시에 모든 저자를 표제에 나타난 대로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 때, 100과 700이 중복된다고 볼 수 있겠으나 1명의 저자로서 한글로 쓰여진 저자의 경우만 중복이 될 수 있으나, 이것은 얼마든지 개선의 여지가 있다. 무엇보다도 앞으로는 모든 저자명 다음에 생몰년이나 전공분야를 함께 기술하여 인명을 주제명화 하여야 하기 때문에 700에서 저자명을 통제하는 역할까지 행하여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245의 서명저자사항에서는 서명만을 기술하는 서명사항으로 대체하는 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본다.

이러한 것을 전체로 상기 1인과 3인의 저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기술할 수 있다. 기술포맷도 입력상의 여백을 표시하여 입력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였다.

(현행 KORMARC 입력 포맷)

기본표목-개인명 100 □□\$a개인명,\$b세계를 지칭하는 숫자,\$c칭호,\$d생몰년,\$e역할어  
\$f역조,\$g한국 및 중국의 세계,\$i언어

(100 태그의 기술포맷 개선안)

저자사항 100 □□\$a첫번째 저자,△두번째 저자,△세번째 저자 ....

(개선안에 의한 저자가 1인인 경우의 입력포맷)

저자사항 100 □□\$a홍길동.

서명사항 245 □□\$a한국의 역사.  
접근점-개인명 700 □□\$a홍길동,\$b사학자,\$d1945- .

(개선안에 따른 저자가 3인인 경우의 입력 포맷)

저자사항 100 □□\$a홍길동,△이기동,△김기동.  
서명사항 245 □□\$a한국의 역사.  
접근점-개인명 700 □□\$a홍길동,\$b사학자,\$d1945- .  
접근점-개인명 700 □□\$a이기동,\$b사학자,\$d1970- .  
접근점-개인명 700 □□\$a김기동,\$b사학자,\$d1960- .

### (3) 4인 이상의 공저자인 경우

현재 AACR2나 KCR3에서 규정하고 있는 4인 이상의 저자는 서명을 표목으로 하고, 서명저자 사항에는 첫번째 저자만을 기입하고 나머지는 [등저]와 같이 표현하여 2번째 이하의 저자는 전혀 알 수도 없을 뿐 아니라 부출도 하지 않고 있어 접근조차도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이것 또한 전형적인 수작업 방법의 단면이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이제는 문헌의 내용을 10개 이상의 키워드를 추출하여 색인어로 부여하는 시대에 저자를 접근도 할 수 없게 하고 있음은 하루 빨리 시정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저자가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대개는 하나의 키워드 이상으로 저자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4인 이상의 저자도 앞의 1-3인의 저자와 동일하게 태그 100의 저자사항에는 모든 저자를 기입하고, 700에서 모든 저자를 접근점으로 제시하여 이용자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렇지만 책의 내용에 비하여 저자수가 지나치게 많은 경우에는 자판의 재량에 따라 임의적으로 운용할 수도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 (4) 저자명이 한자로 기술된 경우

저자명이 한자로 기술된 경우에는 태그 100의 저자사항에 표제지에 나타난 대로 한자명을 기입하고, 700에서 접근지시 함으로서 기술상의 중복은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이의 예는 다음과 같다.

저자사항 100 □□\$a洪吉童.  
서명사항 245 □□\$a한국의 역사.  
접근점-개인명 700 □□\$a홍길동,\$b사학자,\$d1945- .

## 2) 저자사항(태그 245)

### (1) 태그 245의 기술상의 문제

현재 KORMARC에서 사용하고 있는 태그 245의 기술 순서는 다음과 같다.

서명/저자사항 245□□\$a본서명\$b부서명\$c잡제/\$d첫번째저자;\$e두번째;\$e세번째저자  
\$h공통자료표시\$n권차\$p권차서명\$x대등서명.

우선 위의 KORMARC 기술포맷 상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245 태그에서 부서명이나 잡제는 엄격하게 구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나의 식별기호 하에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더구나 지금은 부서명이나 잡제를 같은 연결기호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출력을 하고 나면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부서명인지 잡제인지 구분할 수도 없다. 이렇게 하면 식별기호도 하나 더 줄일 수 있고, 목록자도 보다 편리하게 목록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저자사항은 단순한 기술일 뿐이며 접근점을 제공할 목적으로 기술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저자명의 기술을 저자마다 별도의 식별기호와 연결기호를 사용하여 \$d첫 번째저자△;\$e두번째 저자△;\$e세번째 저자로 기술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기술방식이다. 이것이 분명 잘못된 기술방식이라는 사실을 USMARC의 기술방식<sup>6)</sup>을 보면 자명하다.

이렇게 잘못 운영되고 있는 내용을 개선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이미 태그 100의 저자사항에서 모든 저자를 전부 기술하였기 때문에 이제 245태그에서는 저자명을 기술할 필요가 없게 된다. 따라서 245태그는 서명/저자사항이 아닌 서명사항으로 서명만을 기술하는 것으로 사용할 수 있다. 245태그에서 저자명을 삭제하고 나면 나머지사항을 전부 현행과 같이 기술할 수도 있고, 권차와 권차서명을 별도의 태그를 부여하여 사용할 수도 있겠으나 이용자의 입장을 고려하면 권차와 권차서명을 분리하여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245태그에 너무나 잡다한 내용이 기술됨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기술할 때마다 부가적인 기호를 사용하고 있어 이용자의 혼돈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현행 KORMARC의 기술내용을 개선할 기술포맷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는 한칸의 띄움을 의미한다. 양서의 경우는 타이프의 한 스페이스를 의미하며, 한글의 경우에는 다소 융통성있게 간격을 조절하여 사용한다.)

6) USMARC의 기술방식은 \$c 다음에 모든 저자를 전부기입하고 있으며, 저자사항 가운데 역할이 다른 저자사항이 연이어 나타날 때는 세미콜론(;)을 사용하여 기술하고 있다.

## 12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 30권 제 3호)

(245태그의 개선 1안)

서명사항□□245\$a본서명△:\$b부서명, 잡제.\$h공통자료표시△=\$x대등서명.

그리고 다권본의 경우에는 종합기술 방식을 취하여 하나의 레코드에 다권본의 권차와 내용을 주기하고, 049 태그에 소장정보를 기술하면 되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권차사항은 다권본을 낱권처리 할 때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현재의 KORMARC 기술상의 입력포맷과 개선 안의 입력내용을 비교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현행 KORMARC에 의한 목록)

기본표목-저자 100 \$a홍길동,\$b사학자,\$d1945- .

서명/ 저자사항 245 10 \$a아시아의 역사△:\$b한국편△/\$d洪吉童△\$e李基東△\$e金基東  
[공저]

부출표목-개인명 700 \$a이기동,\$b사학자,\$d1970- .

부출표목-개인명 700 \$a김기동,\$b사학자,\$d1960- .

(개선안에 의한 목록)

저자사항 100 \$a洪吉童,△李基東,△金基東 [공저].

서명사항 245 \$a아시아의 역사△:\$b한국편.

부출표목-개인명 700 \$a홍길동,\$b사학자,\$d1945- .

부출표목-개인명 700 \$a이기동,\$b사학자,\$d1970- .

부출표목-개인명 700 \$a김기동,\$b사학자,\$d1960- .

### (2) 한자로 사용된 서명

245태그에서 한글로 표기된 서명은 바로 접근점을 제공할 수 있으나, 한자로 표기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한글표기를 기록해 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지금의 KORMARC 기술규칙에 의하면 740태그를 사용할 수도 있겠으나 태그 740은 부추표목-서명과 다르게 부출되는 서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한자로 된 서명의 경우에는 별도의 태그를 사용하던지 아니면 지금의 740 태그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아래의 태그 246은 본 연구에서 새로이 추가한 한자로 표기된 서명의 한글표기 태그이다.

## (개선안에의한 목록)

저 자 사 항	100	\$a洪吉童△李基東△金基東 [공저].
서 명 사 항	245	\$a東洋史 研究△ : \$b韓國 篇.
한글서명(한자)	246	\$a동양사 연구△ : \$b한국 편.
부출표목-개인명	700	\$a홍길동,\$b사학자,\$d1945- .
부출표목-개인명	700	\$a이기동,\$b사학자,\$d1970- .
부출표목-개인명	700	\$a김기동,\$b사학자,\$d1960- .

## 3. 태그 240 통일서명

태그 240은 통일서명(Uniform Title)을 기술하는 태그이다. 이 필드에는 특정 자료가 여러 가지 다른 서명으로 출판된 경우에 이를 자료를 한 자리에 모으기 위해서 특정 서명을 통일 서명으로 잡아 사용할 때 사용한다. 물론 기본표목이 아닌 기술사항으로서 통일서명을 채택한 경우로서 태그 130과 240은 중복하여 기술하지 않는다.

그러나 USMARC의 경우에는 이러한 일반적인 경우이외에 번역도서를 목록하는 경우에도 번역도서의 원서명을 통일서명으로 잡아 사용하게 함으로써 목록데이터를 입력함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이와 같이 번역도서를 목록 할 때 원서명을 통일서명으로 잡아 기술하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을 수 있다.

- (1) 첫째, 한 자료가 다수의 언어로 번역된 경우에 원서명하에서 관련 번역도서를 전부 확인 할 수 있다.
- (2) 둘째, 주기사항이 아닌 기입체사항에 원서명을 기입함으로써 목록자나 이용자가 이용이 용이하다.
- (3) 셋째, 507의 주기사항이 필요 없고 목록이 간편하게 된다. 태그 507은 어디까지나 목록카드상의 주기를 목적으로 기술한 내용이기 때문에 자동화 목록의 관점에서는 적절하지 못하다.
- (4) 넷째, 지금의 KORMARC에서 태그 507을 주기 할 때는 원저자명이나 원서명이 서명저자사항에 원어로 나타나지 않는 경우로 하고 있어, 항상 목록이 가변성이 많지만 태그 240에 의한 목록은 가변성이 적어 목록자가 분명한 목록을 할 수 있다.

또한 현재 KORMARC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술형식도 다음과 같이 나타내고 있으나 이것 또한 보다 명확한 형식으로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 14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 30권 제 3호)

(현재 KORMARC의 기술내용)

통일서명 240□□\$a통일서명\$d조약의 서명일자\$f발행년\$g기타정보\$h공통자료표시  
\$n권차\$p권차서명\$s판사항

(240태그의 기술포맷 개선안)

통일서명 240□□\$a통일서명.\$d조약의 서명일자,\$f발행년,\$g기타정보,\$h공통자료표시.  
\$s판사항

이러한 통일서명의 사용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현행 KORMARC의 기술포맷)

(개선안에 의한 목록의 예)

(일반적인 통일서명의 예)

100 1b \$a김만중	100 \$a 김만중.
240 b0 \$a사씨남정기	240 \$a사씨남정기
245 10 \$a남정기/\$d 김만중 저	245 \$a남정기.
	700 \$a 김만중,\$c국문학자\$d?-

(KORMARC에 의한 번역도서의 예)

100 \$a진챠트, 클레리  
245 \$a정보관리론/\$dC. Guinchart;\$eM. Menou 공저;\$e김태수 공역  
260 \$e서울 : \$b구미무역출판부,\$c1989.  
300 \$exvi,452p. : \$b삽도,\$c23cm  
507 \$tGeneral introduction to the techniques of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works.  
700 \$aGuinchart, C  
700 \$aMenou, M.  
700 \$a메노, 미셸  
700 \$a사공철  
700 \$a김태수

(개선안에 의한 번역도서의 예)

100 \$aGuinchart, C, Menou, M. 저△;△사공철,△김태수 공역

- 240 \$aGeneral introduction to the techniques of information and documentation works.
- 245 \$a정보관리론.
- 260 \$e서울△ : \$b구미무역출판부,\$c1989.
- 300 \$exvi,△452△p.△ : \$b삽도△;\$c23△cm.
- 700 \$aGuinchart, C.
- 700 \$a\$aMenou, M.
- 700 \$a메노, 미셸
- 700 \$a사공철
- 700 \$a김태수

#### 4. 태그 250 판차사항

태그 250은 판차사항이다. 이 판차사항에서 현행 기술상의 문제점은 판차사항에 관련된 사항을 축약해서 기술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축약 기술방식은 한정된 여백을 가진 목록카드상의 기술인 만큼 이제는 이것에서 탈피하여 모든 판 사항을 표제지에 나타난 대로 기술하여야 할 것이다.

250 식별기호 \$a제3판 개정증보

250 식별기호 \$a3rd edition. (ed.가 아닌 edition으로 기술한다)

250 식별기호 \$aRevised and Enlarged edition. (Rev. and Enl. ed.가 아닌 완전하게 기술한다).

#### 5. 태그 260 발행사항

이 필드에는 발행지, 발행자, 발행년 등 발행사항과 관련된 내용을 기술한다. 기술방법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이 기술방법도 보다 정확하게 기술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야 하며, 이를 정확한 기술방법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현행기술) 식별기호\$a발행지,배포지[반복]\$b발행자,배포자[반복]\$c발행년,배포년[반복],  
\$d발행자주소\$e인쇄지\$f인쇄자\$g인쇄년

## 16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0권 제3호)

(개 선안) 식별기호 \$a발행지,배포지[반복]△ : \$b발행자,배포자[반복],\$c발행년,배포년[반복],  
\$d발행자주소\$e인쇄지△ : \$f인쇄자,\$g인쇄년.

현행의 기술방법에 따라 출판사항을 기술하면, USMARC의 기술법과 기본 규칙은 같으나 기술된 내용의 결과는 다음의 예에서와 같이 사이 띄기와 마침점의 사용여부에서 차이가 나고 있다. 부호 다음의 식별기호는 붙여 사용하더라도 시스템에서 해결하지만, 부호 앞의 사이 띄기는 인위적으로 띄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실제 출력을 하였을 경우에도 사이 띄기 없이 그대로 붙여 사용하였을 때는 시각적인 면에서도 답답한 감이 있다.

(현행기술) 식별기호 \$a서울 : \$b을유문화사,\$c1987  
(출력의예) 식별기호 서울 : △을유문화사,1987 <--- 마침점 없음

(개 선 안) 식별기호 \$a서울△ : \$b을유문화사,\$c1987.  
(출력의예) 식별기호 서울△ : △을유문화사,△1987. <---마침점 있음

목록은 어디까지나 서지기술이기 때문에 이것은 국제적인 통일된 규칙에 의거하여 작성하도록 약속하고 있다. 1개의 도서관만이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KORMARC에 입력된 정보는 모든 국내 도서관들이 이용하는 만큼 입력에 신중을 기하고,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 6. 태그 300 형태사항

이 필드에는 해당자료의 페이지 수, 권수, 삽도, 크기와 딸림자료 등을 기술한다. 현행 기술방법 및 개선안은 다음과 같다.

(현행기술) 식별기호\$a면장수, 권책수\$b삽도\$c크기\$d장정\$e딸림자료  
(개 선 안) 식별기호\$a면장수,권책수△ : \$b삽도△;\$c크기.\$d장정△+\$e딸림자료

현재 KORMARC의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 정보의 내용을 보면, 300 태그의 경우 다른 어떤 태그의 데이터보다도 무질서하게 기술하고 있다. 이것은 무엇보다도 KORMARC 기술규칙이 있으나 이 규칙을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의 데이터 입력에 원칙을 제시하지 않음으로 인해 이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데이터를 입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무원칙의 정보

로 인해 도서관간 정보의 교환에 많은 장애요인이 되고 있다. USMARC의 경우에는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이에 준하는 규칙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USMARC와 KORMARC의 형태사항 기술에서 기술요소의 차이는 별로 없으나 실제 출력상에 나타나는 데이터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

KORMARC 데이터베이스에 나타난 대부분의 데이터는 면장수의 표기에서 xvi, 278p.와 같이 페이지와 뒷부분의 p.를 붙여 기입하고 있으나, USMARC에서는 xvi, 278 p.과 같이 띄어쓰고 있다. 또 크기를 기술할 때도 cm가 어디까지나 약자이기 때문에 cm 다음에 마침점을 찍어 기술하여야 하나 실제로 데이터를 입력한 예를 보면 마침점을 사용한 예가 거의 없다. 이에 USMARC의 입력방식에 따른 입력 개선 안으로 실제 데이터를 입력하여 보면 다음과 같이 된다.

식별기호\$axvi,△278△p.△ : \$billus.△;\$c23△cm.△+\$e음반(2면△ : △331/3회전△; 30△cm.)

## 7. 태그 440 총서사항/부출표목

태그 440의 입력을 보다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개선안과 같은 방법으로 기술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현행기술) □□\$a총서명 또는 하위 총서명[반복].\$n본 총서의 편번호\$p본 총서의 편서명,  
\$s국제표준 연속간행물번호\$v총서번호 또는 하위 총서번호 [반복]  
=\$x대등총서명

(개 선 안) □□\$a총서명 또는 하위 총서명[반복].\$n본총서의 편번호△:\$p본 총서의  
편서명,\$sISSN△;\$v총서번호 또는 하위총서번호[반복]△=\$x대등총서명.

(현행 입력의 예)

440 00 \$a한국문학대전집;\$v5  
440 00 \$a건강시리즈;\$v28.\$신경성 질환;\$vno.2  
440 00 \$a 구한말일제침략사료총서.\$n2,\$p경제편;\$v1

(개선안)

440 00 \$a한국문학대전집△;\$v5  
440 00 \$a건강시리즈△;\$v28.\$신경성 질환△;\$vno.2  
440 00 \$a 구한말일제침략사료총서.\$n2,\$경제편△;\$v1.

## 8. 태그 490 총서사항/부출되지 않거나 다르게 부출되는 총서

태그 490의 입력포맷도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현행기술) □□ \$a총서명 또는 하위총서명 [반복]\$n본총서의 편 번호\$p본총서의 편서명  
\$sISSN\$v총서번호 또는 하위총서번호[반복]\$x대등총서명 [반복]  
(개 선 안) □□ \$a총서명 또는 하위총서명 [반복]△;\$n본총서의 편번호△ : \$p본총서의  
편서명\$sISSN△;\$v총서번호 [반복]△=\$x대등총서명 [반복]

## III. KORMARC 데이터 입력을 위한 개선(안)

KORMARC 데이터 입력에 관련된 문제점의 해결은 어디까지나 기존의 목록카드 중심이 아니라 자동화 시스템 중심의 미래지향적이어야 하고, 나아가 시스템과 이용자가 다같이 보다 손쉽게 검색하고 이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 개선해야 할 부분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 1. 정확한 기술규칙의 적용

현재 KORMARC에서 입력하고 있는 입력 데이터의 품질을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입력기준과 기술을 통하여 요구된다. 무엇보다도 KORMARC상의 서지데이터의 기술은 단순한 한 도서관내에서의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이 아니고, 국가 전체의 도서관간 정보교환과 나아가 국제간의 정보교환이 이루어지는 만큼,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KORMARC 작성 초기에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것이 하나의 목표가 되었을 지라도 지금의 실정에서는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자체보다는 입력된 데이터에 대한 질적인 문제가 우선 시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은 너무 상세한 입력포맷을 사용하기에 편리한 간략한 형태의 입력포맷을 마련하되, KORMARC 데이터 입력에 필요한 서지작성기술규칙을 가미한 입력포맷을 제시하여 이를 토대로 입력함으로써 입력데이터의 품질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본다.

이에 현재 KORMARC 데이터베이스를 제작하기 위해 데이터 입력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KORMARC Format)과 KORMARC 기술규칙을 별도로 분리시킬 것이 아니라 데이터입력 안내서에서는 이들을 서로 보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야 한다. 따라서 현재 데이터의 입력요소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는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을 기술규칙을 가미한 형태로 입력을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의 품질을 향상하여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에 대하여 기술규칙을 가미한 데이터의 일반적인 입력원칙은 다음과 같다. (△는 한 칸의 여백을 의미함)

① 사용부호는 다음에 이어 오는 데이터의 성질에 따라 결정된다. 300 태그의 경우 출판지 다음에 출판사가 오면 콜론(:)이 오고, 출판사 없이 연도가 오면 콤마(,)가 온다.

예) 245 \$a東洋史 研究△ : \$b韓國 篇.

245 \$a東洋史 研究△/\$d홍길동△\$e이기동△\$e김기동

245 \$a東洋史 研究△/\$d홍길동 저.

260 \$a서울△ : \$b三省出版社\$c1972.

260 \$a서울,\$c1972.

② 대부분의 부호는 앞뒤에 한 칸의 여백을 두고 출력한다. 이를 위해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부호 앞에는 한 칸을 띄어 주고, 뒷부분에는 식별기호를 붙여 입력한다. 출력은 앞뒤로 한 칸의 여백을 두고 인쇄하도록 프로그램 한다. 위의 예 참조. 단 콤마(,)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콤마의 경우에는 앞의 데이터에 바로 붙여 입력한다.

예) 260 \$a서울△ : \$b을유문화사\$c1987.

③ 한글 데이터의 경우에는 띄어쓰는 원칙을 정하여야 한다. 서명의 경우 여백없이 완전히 붙여 입력하는 방법, 접속사나 조사와 같은 유형 다음에는 띄어쓰는 방법, 복합명사는 붙여쓰는 방법과 띄어쓰는 방법, 등 철저한 원칙을 정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크게는 조사 다음에는 띄어 입력한다 하더라도 명사와 명사의 결합어를 붙여쓰느냐 띄어쓰느냐 하는 결정

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않고서는 검색의 효율성을 높일 수 없다.

④ 모든 데이터의 마지막에는 마침점(.)을 찍는다.

⑤ 약자인 경우에는 반드시 점(.)을 찍는다.

예) 300 \$axxiv,△238△p.△ : \$billus.△;\$c26△cm.

## 2. 데이터 입력자의 철저한 교육

KORMARC 데이터베이스는 국립중앙도서관에서만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것이 아니고, 국가적 사업이다. 이러한 국가적 사업을 위한 업무에는 작업의 원칙과 규칙 및 이를 수행할 우수한 직원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초창기 데이터베이스 제작에는 이러한 일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관계로 데이터베이스 품질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게 되었다.

따라서 향후의 데이터베이스 제작을 위한 데이터 입력요원은 보다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거치되, 교육 후 자질을 검정한 연후에 데이터 입력 요원으로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데이터의 입력에 이어 입력데이터의 철저한 교정작업과 주기적인 오류수정 작업도 병행하여야 할 것이다.

## 3. 자동화 환경에 맞는 용어의 사용

KORMARC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대부분은 KCR3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들이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들의 상당한 부분이 자동화 환경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물론 자동화 초기에는 자동화 환경에 따른 용어의 사용에 큰 어려움이 없었고, 대부분은 수작업으로 행하던 목록을 컴퓨터를 사용하여 목록 한다는 단순한 자동화의 관점에서 고려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지금의 환경은 이러한 자동화 목록의 초창기 환경과는 너무나도 다르다. 우선 자동화 초기에는 카드목록의 사용을 전제로 한 목록자동화의 개념이었으나 지금은 점차 카드목록이 자취를 감추고, 온라인 환경으로만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목록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목록에 관련된 각종 문헌 및 기술규칙들은 과거 수작업 당시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 자동화 환경에 맞는 규칙 및 문헌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한국자동화목록기술형식과 한국자동화목록기술규칙은 수작업 방식의 목록에서 탈피하여 진정으로 자동화 환경에 맞는 포맷으로 개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현재의 KORMARC 포맷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 가운데 자동화 목록환경에 적절하지 않은 용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 행 용 어	개 선 (안) 의 용 어
100 기본표목-개인명	100 저자사항-인명
110 기본표목-단체명	110 저자사항-단체명
111 기본표목-회의명	111 저자사항-회의명
130 기본표목-통일서명	130 (삭제)
240 통일서명	240 통일서명
245 서명/저자사항	245 서명사항
250 판사항	250 판차사항
260 발행사항	260 발행사항
300 형태사항	300 형태사항
440 종서사항/부출표목	440 종서사항/접근점
490 종서사항-부출되지 않거나 다르게 부출되는 종서	490 종서사항/비접근점
500 일반주기	500 일반주기(내용일반)
501 합철본주기	501 합철본주기(합철본사항)
502 학위논문주기	502 학위논문주기(학위논문사항)
503 서지내력주기	503 서지내력주기(서지내력사항)
504 서지주기	504 서지주기(서지기술사항)
505 내용주기	505 내용주기(내용기술사항)
506 사용자제한주기	506 사용자제한주기(사용자제한사항)
507 원저자, 원서명 주기	507 (삭제)
510 인용주기	510 인용주기(인용사항)
520 요약, 초록, 해제주기	520 요약, 초록, 해제 주기( "사항)
521 이용대상자 주기	521 이용대상자 주기( "사항)
533 복제주기	533 복제주기(복제정보)
534 원본주기	534 원본주기(복제원본 정보)
580 연관저록설명주기	580 연관저록설명주기(연관저록정보)
600 주제명부출표목-개인명	600 주제명-개인명
610 주제명부출표목-단체명	610 주제명-단체명
611 주제명부출표목-회의명	611 주제명-회의명
630 주제명부출표목-통일서명	630 주제명-통일서명
650 주제명부출표목-일반주제명	650 주제명- 일반주제
651 주제명부출표목-지명	651 주제명-지명
653 비통제주제명	653 비통제주제명(자연어)
700 부출표목-개인명	700 접근점-저자명(인명)
710 부출표목-단체명	710 접근점-단체명
711 부출표목-회의명	711 접근점-회의명
730 부출표목-통일서명	730 접근점-통일서명

현 행 용 어	개 선 (안) 의 용 어
740 부출표목-본서명과 다르게 부출되는 서명	740 접근점-본서명과 다르게 접근하는 서명
765 원저저록	765 원저문헌 정보
767 번역저록	767 번역문헌 정보
770 부록 및 특별호저록	770 부록 및 특별호 정보
772 모체레코드 저록	772 모체문헌 정보
775 이판저록	775 이판문헌 정보
780 선행저록	780 선행문헌 정보
785 후속저록	785 후속문헌 정보
830 총서부출표목-통일총서명	830 접근점-통일총서명

#### 4. 카드목록을 전제로 한 기술방식 개선

자동화목록을 행하고 있는 도서관에서 온라인목록과 카드목록을 혼용하거나 카드목록을 다시 사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지금의 KORMARC와 같은 자동화목록을 위한 데이터의 입력은 과거 수작업 목록카드 시대의 기술규칙과 관습을 탈피하여 완전한 자동화시대에 적합한 규칙과 원칙을 마련하여 사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수작업 방식의 카드목록의 잔재로 인하여 도서관 현장에서는 목록데이터의 입력이 까다롭고 어려운 반면,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검색된 목록데이터를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수반되고 있다.

아직까지 자동화목록에서 카드목록의 잔재로 볼 수 있는 주요내용 및 개선방향은 다음과 같이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용용어는 이미 언급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생략한다.

- 1) 태그 100의 경우 기본표목-인명이라 하여 편자나 역자와 같은 저자는 제외한 채, 한 사람의 저자만 여기에 기입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 저자는 부출지시 하되, 이것도 카드목록에서와 같이 3인의 저자까지만 허용하도록 한 점이 온라인 환경에 부합되지 않는 사항이다. 이제는 태그 100에서는 모든 저자(인명)명을 기술하는 형식으로 변경하고, 태그 700에서 모든 저자를 접근점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서명/저자사항에서는 카드목록에서 기술하고 있는 순서와 동일하게 서명과 저자명을 동시에 기록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는데, 태그 100에서 모든 저자를 기술한다면, 이 245태그에서는 서명만 기술하는 방향으로 해야할 것이다.
- 3) 번역서의 경우 태그 507은 원저자, 원서명에 대해 목록카드 상의 주기를 목록으로 만든 태

그인 만큼, 원서명은 태그 240의 통일서명을 사용하고, 원저자는 태그 700에서 기술하는 것이 온라인 환경에 이상적이다.

- 4) 출판사항 및 대조사항의 기술에 있어서도 목록카드의 기술방식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 약자와 부호의 사용이 많은 점도 개선하여야 한다.
- 5) 각 종 주기사항과 부출지시의 내용 및 기술방식이 카드목록의 내용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카드목록의 주요내용들을 온라인 목록의 환경에 맞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순수한 카드목록이 존속할 필요가 생각된다면, 완전한 온라인 목록을 위한 규칙과 순수한 카드목록을 위한 규칙이 별도로 존재해야 할 것으로 본다. 완전한 온라인 목록을 위한 경우라면, 표목의 개념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자가 없는 경우에는 서명으로 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저자사항은 공백으로 비워 둘 수도 있다. 즉 어떠한 경우에도 카드목록에서처럼 카드의 배열을 위해서 서명을 표목으로 잡을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자동화목록에서 저자는 항상 저자로서의 의미만 가지고, 서명은 서명으로서의 의미만 지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동화목록에서는 카드목록의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 5. 기술규칙의 현실화

현재 KORMARC 기술규칙은 자동화목록 입력규칙에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 쉽게 말해서 기술규칙 따로, 입력실제 따로이다. 질적으로 우수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술규칙을 반영한 입력규칙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규칙이 만들어지면, 데이터 입력자는 이러한 규칙을 적용하여 손쉽게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보다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작업을 할 수 있다.

여기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서는 각 태그별 입력의 실 예(부호사용 및 띄어쓰기 적용)와 자료 유형별 데이터 입력 방법 등이 있을 수 있다.

## 6. 기술형식의 개선(안)

현재의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의 기술포맷은 데이터베이스에 입력된 데이터의 내용과 비교해 볼 때, 너무나 복잡하고 난해하게 기술되어 있다. 이용되지도 않고 기술만 되어 있는

규칙은 의미가 없다. 물론 규칙은 모든 경우를 고려하여 만들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실무를 위해서는 별도로 적합한 내용만을 가지고 이해하기 쉽고, 입력에 도움이 되도록 별도로 제작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KORMARC 입력포맷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필드명	태그	기술포맷
저자사항-인명	100	\$a 저자명.\$b 저자명2,\$c 저자명3...
저자사항-단체명	110	\$a 단체명.\$b 하위기관[반복].\$c 회의개최지.\$d 회의일자.\$e 역할어. \$k 형식부표목[반복].\$l 언어.
저자사항-회의명	111	\$a 회의명.\$c 개최지.\$d 회의일자.\$e 단체부표목으로 사용된 하위기관[반복].\$l 언어.\$n 회차△ : \$p 회차서명[반복].
통일서명	240	\$a 통일서명.\$f 발행년.\$h 공통자료표시.\$l 언어
서명사항	245	\$a 본서명[반복]△ : \$b 부서명[반복]△ : \$c 잡제[반복]△ = \$x 대등서명 [반복].\$h 공통자료표시△
판차사항	250	\$a 판표시△/\$b 당해판의 저작자표시[반복].
발행사항	260	\$a 발행지[반복]△ : \$b 발행자[반복].\$c 발행년[반복].
형태사항	300	\$a 면장수, 권책수△ : \$b 삽도△;\$c 크기△+\$d 장정△+\$e 딸림자료.
총서사항/접근점	440	\$a 총서명 또는 하위총서명 [반복]△;\$n 본총서의 편번호△ : \$p 본총서의 편서명.\$s ISSN△,\$v 총서번호[반복]
총서사항/비접근점	490	\$a 총서명 또는 하위총서명 [반복]△;\$n 본총서의 편번호△ : \$p 본총 서의 편서명.\$s ISSN△,\$v 총서번호[반복]
내용일반	500	\$a 표출어를 사용하지 않는 기술. \$b 관제. \$e 부서명. 판권기 서명. \$f 판권기 서명 \$g 표지서명. \$h 책등서명. \$i 번역서명. \$j 대등서명. \$k 잡제. \$l 번역저자명. \$m 부논문. \$r 총서명 관제. \$s 총서명편자. \$z 정의되지 않은 표출어.

필드명	태그	기술포맷
합침본사항	501	\$a합침본 사항.
학위논문사항	502	\$a학위논문사항△\$b학위수여기관△ : \$c학과 및 전공,\$d학위년도.
서지내력사항	503	\$a서지내력사항.
서지기술사항	504	\$a서지기술.
내용기술사항	505	\$a완전한 내용기술 : 전집이나 총서가 완질로 입력된 경우. \$b불완전한 내용주기 : 전집이나 총서 중에서 일부분이 입력되는 경우.
사용자제한 사항	506	\$a사용자제한 사항
원저자/원서명	507	삭제
인용사항	510	\$a해제지, 초록지명
요약, 초록, 해제 사항	520	\$a요약내용 \$b초록 \$c 해제내용
이용대상자 사항	521	\$a이용대상자 정보
복제정보	533	\$a복제형식,\$b복제장소△ : \$c복제기관,\$d복제일자,\$e복제형태사항.
복제원본정보	534	\$p원본관련설명적문구.\$a원본의저자사항.\$t원본서명.\$b원본판사항 .\$c원본출판사항.\$e원본형태사항.\$f원본총서사항.\$n원본기술사항, \$zISBN.
연관저록정보	580	\$a연관저록 설명정보
주제명-개인명	600	\$a개인명,\$b세계(世系),\$c칭호 및 기타명칭,\$d생몰년,\$f역조(歷朝). \$i언어.\$2주제명표목표/시소러스.
주제명-단체명	610	\$a기본요소.\$b하위기관[반복].\$c회의개최지.\$d회의일자\$x일반세목 \$2주제명표목표/시소러스.
주제명-회의명	611	\$a회의명.\$c개최지△ : \$d회의일자.\$e단체부표목으로 사용된 하위기관 [반복].\$i언어.\$2주제명표목표/시소러스.
주제명-통일서명	630	\$a통일서명.\$f발행년.\$h공통자료표시.\$i언어.\$2주제명표목표/시소러스.
주제명-일반주제	650	\$a일반주제명\$x일반세목[반복]\$y시대세목[반복]\$z지리세목[반복] \$2주제명표목표 / 시소러스.
주제명-지명	651	\$a지명(地名)\$x일반세목[반복]\$y시대세목[반복]\$z지리세목[반복] \$2주제명표목표/시소러스.
비통제 주제명	653	\$a색인어 [반복].
접근점-저자명	700	\$a개인명,\$b세계,\$c칭호 및 기타명칭,\$d생몰년,\$e역할어.\$f역조 (歷朝).\$i언어
접근점-단체명	710	\$a기본요소.\$b하위기관.\$c회의개최지.\$d회의일자.\$e역할어. \$k형식부표목.\$i언어.
접근점-회의명	711	\$a회의명.\$c개최지.\$d회의일자.\$e단체부표목으로서의 하위기관 [반복].\$i언어

필드명	태그	기술포맷
접근점-통일서명	730	\$a통일서명.\$f발행년.\$g기타정보.\$h공통자료표시.\$k형식부표목 [반복].\$l언어.
접근점-서명	740	\$a접근서명.\$h공통자료표시
원저문헌 정보	765	\$a저자사항,\$b서명.\$c판차.\$d발행지△ : △발행자,△발행년.\$xISSN \$yCODEN.\$zISBN[반복].
번역문헌 정보	767	\$a저자사항,\$b서명.\$c판차.\$d발행지△ : △발행자,△발행년.\$xISSN. \$yCODEN.\$zISBN[반복].
부록 및 특별호 정보	770	\$a서명.\$b판차.\$c부가적식별정보.\$d발행지△ : △발행자,△발행년.\$xISSN \$yCODEN.\$zISBN[반복].
모체문헌 정보	772	\$a서명.\$b판차.\$c부가적식별정보.\$d발행지△ : △발행자,△발행년.\$g관계 표시.\$xISSN.\$yCODEN.\$zISBN[반복].
이판문헌 정보	775	\$a서명.\$b판차.\$c부가적 식별정보.\$d발행지△ : △발행자,△발행년. \$e언어부호.\$f국가부호.\$g관계표시[반복].\$xISSN.\$yCODEN.\$zISBN[반복].
선행문헌 정보	780	\$a서명.\$b판차.\$c부가적식별정보.\$d발행지△ : △발행자,△발행년.\$g관계 표시.\$xISSN.\$yCODEN.\$zISBN[반복].
후속문헌 정보	785	\$a서명.\$b판차.\$c부가적 식별정보.\$d발행지△ : △발행자,△발행년.\$g관계 표시 \$xISSN[반복].\$yCODEN.\$zISBN[반복].
접근점-통일총서명	830	\$a총서명 또는 하위총서명[반복].\$n본총서의 편번호△ : \$p본총 서의 편서명△\$v총서번호 또는 하위총서번호 [반복]

## IV. 결 론

우리나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CD-ROM으로 제작하여 전국적으로 배포하고 있는 **한국문헌 목록정보** 데이터베이스는 국가적 차원의 데이터베이스이다. 따라서 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에는 보다 치밀한 계획과 원칙, 그리고 숙련된 전문가에 의한 입력작업과 더불어 아래와 같은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 1) 현행 KORMARC시스템에서 해결하여야 할 문제점
  - (1) 동일한 자료가 복본인 경우, 이중으로 입력되어 있는 점
  - (2) 다권본 자료의 경우, 입력원칙이 무시되고 있는 점
  - (3) 입력정보가 사실대로 입력되지 않은 점

- (4) 띄어쓰기나 약어, 마침점의 사용이 올바르게 사용하고 있지 않은 점
- (5) 서명은 모든 단어를 붙여서 입력하던지, 아니면 엄격한 사이띄기 원칙을 적용하여 입력할 필요가 있으나, 이러한 원칙이 없는 점.
- (6) 저자명으로 검색한 경우, 저자를 모두 확인할 수 없는 점
- (7) 4인 이상의 저자는 접근점(부출지시)을 제공하고 있지 않은 점.
- (8) 서명/저자사항에서 목록형식이 지나치게 복잡하게 기술되어 있어 이해하기 어려우며, 특히 저자사항의 기술에서 \$d(첫 번째 저자), \$e(두번째 저자), \$e(세번째)...등으로 식별기호를 사용하는 것과, 권차표시와 권차서명의 기술은 불필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사용하고 있는 점.
- (9)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에서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기술규칙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점

## 2) 현재 시스템을 수정, 보완하여야 할 사항

- (1) 본본 정보에 대해서는 소장정보를 정확히 입력한다.
- (2) 태그 100은 기본표목-인명으로 하기보다는 저자사항으로 하여 편자, 역자를 비롯한 모든 저자에 대해 디스플레이의 역할만을 하도록 하고, 실제 접근은 태그 700에서 제공하도록 한다.
- (3) 태그 245는 서명사항으로 하여 서명만을 기술한다.
- (4) 번역서의 경우 507 태그를 사용하지 않고, 통일서명인 태그 240을 사용하여 목록하여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한다.
- (5) 태그 300 형태사항은 사이띄기와 마침점 표시를 분명히 한다.
- (6) 카드목록에서 사용이 유래된 용어를 온라인 환경에 맞는 용어로 대치한다.
- (7)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과 기술규칙을 상호 보완하여 입력을 정확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보완한다.

이상과 같이 KORMARC는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중에는 지금 현재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보완하여 운영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또한 완전한 온라인 환경에 맞게 재 설계하여야 하는 사항도 있다. MARC와 같은 온라인 목록은 더 이상 카드목록이 아니며, 카드목록을 전제로 한 어폐한 입력이나 포맷도 또한 있을 수 없다. 이제 MARC는 새로운 온라인 환경에 맞는 새로운 포맷으로 단장할 필요가 있다. KORMARC도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수용하여 새롭게 태어날 필요가 있다고 본다.

## 참 고 문 헌

-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자동화목록형식 - 단행본용*.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1993.
-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자동화목록법(KORMARC)에 관한 연구*. 서울 : 국립중앙도서관, 1993.
- 김지훈, "서지데이터베이스의 품질관리 - K관의 MARC레코드 분석을 중심으로 -," *도서관학논집*, 제21집(1994), pp. 401-429.
- 이경호, 김정현 저. *자동화목록법*. 대구 : 대구대학교출판부, 1998.
- 이경호 역. *BiblioFile 목록법*. 대구 : 정각당, 1995.
- 정옥경, "한국문헌목록정보에 있어서의 문제점,"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2권, 제3호(1998.9), pp. 81-96.
- Ayres, F. H. "Duplicates and Other Manifestations : A New Approach to the Presentation of Bibliographic Information," *Journal of Librarianship*, Vol.22, No.4(1990), p.236-251.
- Bland, Rober, "Quality Control in a Shared Online Cataloging Database : The Lambda Experience," *Technical Services Quarterly*, Vo.4, No.2(1986), pp. 43-58.
- Carpenter, Michael, "The Narrow Rugged, Uninteresting Path finally Becomes Interesting : A Review of a Work in Descriptive Cataloging in 1991 with Trail Marks for Further Research," *Library Resources and Technical Services*, Vol.36, No. 3(1992), pp. 291-315.
- Crawford, Walt. *MARC for Library Use*. 2nd Edition. Boston : G.K. Hall & Co., 1989.
- Fattahi, Rahmatollah.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in the Online Environment : A Literature Review," *Cataloging & Classification Quarterly*, Vol.20, No.2(1995), pp. 25-50.
- Maxwell, Margaret F. *Handbook for AACR2 1988 Revision : Explaining and Illustrating the Anglo-American Cataloging Rules*. Chicago : ALA, 1989.
- Ojala, Marydee, "Quality Online and Online Quality," *Online*, Vol.16, No.1(Jan.1992), pp. 73-75.
- O'Neill, Edward T. and Vizine-Goetz, Diane, "Quality Control in Online Database," *ARIST*, Vol.23(1988), pp. 125-156.
- Smiraglia, Richard P. ed. *The Origins, Contents, and Future of AACR2 Revised*. Chicago : ALA, 1992.
- The Library Corporation, *ITS for Windows User Guide*. Inwood, West Virginia : TLC, 1998.
- Weihls, Jean R. and Lynne Howarth. *A Brief Guide to AACR2 1988 Revision and Implications for Automated Systems*. Ottawa : Canadian Library Association, 1988.